

# “법인세수 생각보다 적지만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

### 최상목 부총리 “부가·소득세 흐름 괜찮아... 물가 하향 안정 전망” 전기·가스요금 인상,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민감 현안 즉답 피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재정 상황 등 거시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두루 밝혔다.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기반 약화 우려에는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을 양호하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초중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 회복 지원을 계속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등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로또 당첨금을 늘리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

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평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회견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에 대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세수는 예상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수추계 제도 개선을 생각 중”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 개별기업을 직접 인터뷰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라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대로 그대로 갔으면 국가 채무는 현 정부가 목표한 숫자와 100조원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3.1% 정점에서 4·5월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라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상황이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

렵다”라고 답했다.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정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려면 당첨 확률을 낮추거나 복권판매금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로또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행성 우려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최 부총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계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의 확산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일수록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공급망이 분절되었고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 되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라며 “보완한 뒤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지원에 대해서는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하지 않나. 떨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라며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재정을 지원하려면 기존 것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경연 “올해 벼 재배면적, 2% 감소...쌀 생산량은 3% 줄 듯”

### “벼 대신 콩·가루 쌀 재배 늘어”

올해 벼를 재배하는 농지 면적이 지난해보다 2%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8일 ‘농업관측 6월호 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농업인들의 벼 재배 의향 면적이 69만4000ha로 작년보다 1만4000ha(2.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감소하는 벼 재배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48배에 해당한다.

농경연은 올해 전락작물직불제 참여 농가가 늘며 벼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논콩, 밀, 가루 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두류, 가루쌀의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단가를 작년에 ha당 10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두 배로 올렸다. 또 지원 대상 품목도 쌀, 녹두, 완두 등 두류 전체, 옥수수 등으로 확대했다.

농경연은 쌀 재배 의향 면적 감소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은 360만t으로 작년보다 10만t(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작년처럼 40만t을 매입한다면 올해 수확

기 시장 공급량은 10만t 감소하게 된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80kg(한 가마)에 평균 18만9천488원으로 1년 전보다 6.3% 올랐으나 수확기(10~12월)와 비교하면 6.6% 하락했다.

농경연은 산지 유통업체 재고 부담으로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간 거래가 많지 않아 현재 산지 유통업체 재고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량은 지난 달 말 92만5천t으로 작년 동기보다 25만t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상반기 우수직원 간담회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28일 각 지점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직원 20여명을 초청, ‘2024년 상반기 우수직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재현 본부장을 비롯해 차상훈 전남노조위원장 등이 함께해, 사업별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을 격려하고 서로의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

하는 등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었다.

정재현 본부장은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라며 “농협은행 전남본부도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뒷받침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8일 광주신세계 프리미엄 키즈 편집샵 이희숙 매니저가 ‘보보쇼즈’ 인기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 편집샵서 다양한 골프·아동복 브랜드 만나보세요

### 본관 6층 골프샵·키즈 셀렉샵

광주신세계는 골프용품부터 아동복까지 다양한 종류의 편집샵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본관 6층 골프샵은 신세계가 운영하는 직영 매장으로, 광주·전남 골프 동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클럽과 골프용품 등 수많은 제품과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품목까지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골프샵에서는 명품 클럽인 ‘마제스티’, ‘훈마’, ‘다이아’를 비롯해 인기 제품인 ‘타이틀리스트’, ‘잭시오’, ‘데일레메이드’ 등을 판매한다.

특히 지난 1995년 광주신세계가 개점할 당시부터 자리를 지켜온 박순화 프로그가 고객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추천한다.

고객 중심의 운영 방침으로 광주신세계 골프샵은 45평이라는 비교적 적은 규모에도 매년 두 자릿수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같은 층의 프리미엄 키즈 셀렉샵 ‘리틀 그라운드’ 역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리틀 그라운드는 지난해 입점한 이후 20개가 넘는 다양한 브랜드와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보보쇼즈’다. 보보쇼즈는 수입제품 특성상 한정 판매되고 있어, 학부

모이 ‘오픈런’을 할 정도다.

광주신세계 리틀 그라운드가 사랑 받는 데에는 이희숙 매니저의 특별한 서비스도 한 몫했다. 이 매니저는 수년 간 아동복 업계에 종사, 고객들의 취향을 기억해 제품을 추천하거나 완만한 제품도 최선을 다해 구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광주신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골프샵과 리틀 그라운드 등 편집샵들은 한 곳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볼 수 있고, 고객 맞춤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신세계는 앞으로도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집중관리 7대 생필품 중 5개품목 가격 올라

### 소비자원 7대 품목 판매가격 공개 계란·설탕·식용유·화장지 등 상승

한국소비자원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7대 생필품 중에서 계란과 설탕, 식용유, 밀가루, 화장지 등 5개 품목 가격이 이달에 일제히 올랐다.

소비자원은 매달 다소비 가공식품 27개 품목과 우유·라면·계란·밀가루·설탕·식용유·화장지 등 집

중관리 7대 품목 판매 가격을 조사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공개한다. 조사 대상은 유통업체의 할인 등이 반영된 실제 판매 가격이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에 계란 1개 판매 가격은 638원으로 전달보다 5.1% 올랐고, 설탕 100g 가격은 371원으로 1.0% 상승했다.

식용유 판매가격은 100ml에 1024원으로 0.4%, 밀가루는 100g에 234원으로 0.2%, 화장지는 1롤에 921원으로 0.2% 각각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반면 우유는 100ml 기준 판매가격이 418원으로 전달보다 0.6% 내렸고 라면 1개 가격은 784원으로 1.9% 떨어졌다.

소비자원이 매달 조사하는 다소비 가공식품 27종의 5월 판매가격을 보면 콜라와 컵밥, 시리얼, 고추장, 카레 등 21개 품목이 전달 대비 가격이 올랐고, 국수와 햄, 참치통조림, 어묵, 케첩, 컵라면 등 13개 품목 가격은 내렸다.

이 중 유통업체 할인행사 변동으로 인해 콜라와 컵밥 가격은 전달보다 올랐으나 국수와 햄 가격은 내렸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게임사운드 크리에이터’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6월 3일까지 ‘2024 광주음악창작소 게임사운드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게임사운드 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게임 및 음악 산업 간 융합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광주글로벌게임센터와 협업해 게임 음악 IP 50곡을 발간한 바 있다.

또 게임 개발자와 음악크리에이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광주글로벌게임센터·광주음악창작소 성과공유회’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역 뮤지션과 음악 제작이 가능한 일반

인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시트립 부문 5팀과 스타트업 부문 5팀을 모집한다. 선정된 팀은 매월 활동비, 게임사운드 IP 개발비,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비는 예시트립팀은 100만원, 스타트업팀은 50만원이 지급되며, 최종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을 선정해 총 4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6월 3일 오후 3시까지이며, GICON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고문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물 산업 산학협력’ 협약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28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케이워터기술(주) 영섬유역본부와 ‘지역 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협약은 물 산업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기술력을 높이고, 물 산업 분야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원들은 ▲물산업 시설 점검정비 기술역량 강화에 관한 협력 ▲점검정비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관한 협력 ▲지역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에 관한 협력 ▲물산업 기술교류 및 보수시설·설비의 활용에 관한 협력 ▲ESG 경영실천에 관한 협력에 대해 협약하고 상호 적극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주인호 본부장은 “이번 산학협력 협약이 국내 물산업(매출액 49조원) 인재 양성의 마중물 역할이 되어, 지역 내 우수 인재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물산업 발전과 함께 더해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water가 다양한 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2.85(-0.14)
↑ 코스닥	851.01(+3.02)
↓ 금리(국고채 3년)	3.394(-0.019)
↓ 환율(USD)	1358.50(-5.30)